

『漢方醫藥界』 제2호 ‘寫眞插入’에 소개된 한의사들 연구

¹김남일, ²국수호, ³정지훈

¹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²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³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 Study on the Korean Medicine Doctors introduced in ‘Photo Insert’ of 『HanBangEuiYakGye』 No.2

¹Kim Namil, ²KUG Soo-ho, ³JUNG Ji-hun

¹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²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³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The figures listed under the title of ‘Photo Insert’ in 『HanBangEuiYakGye』 No.2 are all those who were engaged in East Asian medicine, but they can be divided into several groups depending on the areas in which they were more focused.

First, he served as a royal physician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or was an oriental medical doctor with outstanding medical skills during the family service. Second, he is an East Asian medicine doctor who established a school for Korean medicine education or conducted various academic activities. Third, he is an East Asian medical doctor who worked hard to lead a group of East Asian medical doctors by organizing Korean medical doctors.

Looking at the reality of the oppression of ethnic medicine committ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hey continued to seek a way to live in national medicine, which played a major role in continuing the existence of Korean medicine without destroying it.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13 Korean medical doctors introduced in the “Photo Insertion” and examined the activities of modern and contemporary East Asian medical doctors.

Key words : HanBangEuiYakGye, Korean Medicine Doctor, Japanese colonial era, History of Korean Medicine, Journal of Korean Medicine

I. 서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한반도는 격동의 시간 속에 있었다. 모든 분야가 변화의 큰 물결 속에 휩싸이고 있었다. 특히 의학 분야는 그 파고가 커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은 힘겹게 파고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 조선의학계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의료제도상 韓醫學의 소외, 서양의학 위주의 의료정책, 韓醫學 교육기관 설립의 불허, 의생규칙의 반포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의계는 이러한 탄압에 맞서 여러 각도로 학문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좌절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¹⁾

이처럼 모두가 힘든 시기에 한의학을 지켜내고 민족의학의 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실 중의 하나가 『漢方醫藥界』라는 이름의 한의학 학술잡지이다. 『漢方醫藥界』가 간행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근대적인 학술토론 방법인 공개된 학술잡지의 간행을 통한 학문적 동지들의 대동단결의 필요성의 대두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시대 이어져온 의서를 중심으로 학문적 상승관계를 통한 도제식 전수만으로는 현대화된 서양의학의 발전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집단적 인식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일제의 지속적인 한의학에 대한 차별정책에 대한 집단적 대응의 필요성의 대두도 중요한 동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漢方醫藥界』는 창간호가 1913년 10월에 간행되었지만 현재

접수 ▶ 2022년 11월 15일 수정 ▶ 2022년 11월 23일 채택 ▶ 2022년 11월 24일
교신저자 ▶ 정지훈,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Tel : 033-730-0671 E-mail : albino24@sangji.ac.kr

1) 정지훈. 「韓醫學雜誌를 중심으로 살펴본 日帝時代 韓醫學의 學術的 傾向」. 韓國醫史學會誌. 2004;17(1):196.

이 창간호는 남아있지 않고 이듬해인 1914년 1월에 발간된 제2호가 남아있기에 현존하는 최초의 잡지는 1914년 1월에 간행된 『漢方醫藥界』 2호가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잡지 제2호에 실려 있는 내용 가운데 ‘寫眞挿入’이라는 제하에 수록되어있는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문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고 이들의 이 시기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20세기 초 한의계에 종사했던 인물들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小村 裴碩鍾

II. 본론

‘寫眞挿入’은 『漢方醫藥界』 제2호의 目次에서 제일 첫 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잡지의 제일 앞부분에 ‘目次’라는 題下에 27개의 장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一. 寫眞挿入’이라고 제목 앞에 번호를 붙이고 있다는 것은 이 잡지의 중요한 목적으로 사진으로 인물을 소개하는 것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을 수록하고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시작되기 전에 ‘太昊伏羲氏’, ‘炎帝神農氏’, ‘黃帝有熊氏’, ‘張景岳先生’의 삽화와 한문으로 된 인물 소개가 실려 있는데, 이것도 ‘寫眞挿入’의 부분에 속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 네 인물이 동아시아 전통의학계의 학문적 시조인 앞쪽 세 명과 유학적 의학의 기초를 만든 네 번째 인물을 꼽아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공통적 목표의 지향점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漢方醫藥界』 제2호의 ‘寫眞挿入’이라는 제하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들은 모두 한의계에 종사한 인물들이지만 그들이 좀 더 중점적으로 활동한 분야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1. 구한말에 왕실의 어의를 역임했거나, 집안 대대로 의업을 하면서 뛰어난 의술을 지닌 한의사

1) 私立醫學講習所 講師 裴碩鍾

2) 홍종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12.

3) 원문은 다음과 같다. “君은 早年醫學호야 行術于十有五年于茲矣라 內任典醫호고 外除郡守호고 位已三品호니 榮譽極矣라 數年以來로 設診察所호고 名曰壽生醫院이라호니 噫라 君之神術이 壽斯民、壽斯世로 爲自任則名其院曰壽生也宜 | 矣로다.” 홍종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12.

4) <http://sjw.history.go.kr/id/SJW-K41110150-00800>.

<그림 1>²⁾의 裴碩鍾(1874-1916)은 ‘寫眞挿入’에 ‘私立醫學講習所講師裴碩鍾君’이라는 제하에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배석중 군은 어려서부터 의학을 공부하고 의술을 행한 지 지금까지 15년에 달한다. 궁중에서 진의에 임명되었고, 밖으로는 군수에 임명되었으며, 벼슬이 3품에 이르렀으니, 명예가 아주 높았다. 수년 전부터 진료소를 개설하였으니 수생의원이라고 부른다. 오호라 군의 신묘한 의술로 이 백성을 오래 살게 해주고 이 세대를 오래 살게 해주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으니, 그 의원을 수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마땅한 일이다.”³⁾

위의 기록을 분석해보면 몇가지 사실을 알게 된다. 裴碩鍾은 경서를 공부한 실력을 바탕으로 의학연구를 시작하여 典醫가 되어 고종을 진료하였다. 여러 차례 진료에서 공을 세워 품계가 상승되었다. 정치적으로 그는 朝鮮醫生會의 幹事였으며 醫學講習所의 講師이기도 하였다. 1914년 무렵에는 壽生醫院을 개설하여 진료를 하고 있었다.

또한 1904년 11월 15일자 『承政院日記』의 기록에서 배석중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태의원 도제조 李近命이 삼가 아뢰기를, ‘本院의 兼典醫 裴碩鍾이 현재 喪中에 있는데, 사무가 긴급하여 서투른 사람에게 맡기기 어려우니, 起復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⁴⁾

여기에 등장하는 李近命은 太醫院(內醫院) 都提調로서 典醫인 裴碩鍾을 起復시키자고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喪을 당해 휴직하면서 喪服을 입은 동안의 기간에는 직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에도 다시 궁중으로 불러들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해당 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 임금이 특별히 조칙을 내려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행위를 ‘起復’라고 한다. 위의 글에서 고종에게 배석중을 起復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조선시대 역대에 정인지, 최항, 황희 등이 기복을 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을 따름이다. 裴碩鍾이 의술이 뛰어나기에 궁중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裴碩鍾은 『漢方醫藥界』 제2호에 “傷寒汗下虛實辨論”⁵⁾이라는 글을 싣고 있다. 『傷寒論』 汗下の 치료법을 『難經』 58난에 있는 설명방식에 따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表裏虛實의 개념을 중심으로 發汗法과 瀉下法을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2) 朝鮮醫生會評議員 孫師濬



그림 2. 孫師濬

<그림 2>⁶⁾의 孫師濬(1888~?)은 ‘寫眞挿入’에 ‘朝鮮醫生會評議員孫師濬君’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의생회의 평의원 손사준 군은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에 걸쳐 한의사인 삼세의가이다. 나이가 어렸을 때 그 할

아버지와 함께 의학을 논했는데, 응대하는 것이 마치 흐르는 듯했다. 고향의 이웃들이 모두 신동이라고 불렀다. 약관의 나이에 이르러 원근의 병자들이 매일 모여들었으니 화천산중에 개업하지 않다가 그만두고 병원을 춘천부에 세우고 한약 83종을 발명하여 강원도 경무부에서 인가를 받으니 이것이 명치 45년이였다. 오호라! 손사준 군이 묘령의 나이로 이것을 양초지간에서 얻은 것은 함부로 말을 하거나 마음을 속이지 않으려는 것일 따름이니 불자의 말에 신시도원공덕보라 하는 것이다.”⁷⁾

위의 글에서 ‘三世醫家’, ‘鄉隣, 皆謂之神童’ 등 그를 묘사하고 있는 몇 개의 키워드가 발견된다. 그의 집안은 한의업을 대대로 이어왔고, 그러하기에 그는 한의학을 어린 시절부터 공부해온 터라 ‘한의학의 신동’이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이다. 이미 약관의 나이에 名醫라고 불리면서 강원도 화천, 춘천 등에서 이름을 떨쳤던 것이다. 그리고 춘천에서 이름을 떨칠 시기는 明治 45년인 1912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83종의 한약을 개발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한의학 제형을 변화를 통해 복용의 간편화 등을 모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朝鮮醫生會 幹事 趙性燦



그림 3. 趙性燦

<그림 3>⁸⁾의 趙性燦(1865~?)은 『漢方醫藥界』 제2호

5) 홍종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28.

6) 홍종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15.

7) 원문은 다음과 같다. “君은 三世醫家라 年纔成童에 與其祖로 論醫學홀시 應對如流하니 鄉隣이 皆謂之神童이러라. 及弱冠時에 遠近診病者 | 日成市焉하니 不獲已開醫業於華川山中이러가 而已요 設病院於春川府고 發明漢藥八十三種호야 承江原道警務部認可하니 此是明治四十五年事也러라. 噫라. 君이 以妙齡으로 得此於梁楚之間者는 不妄語不欺心也而已니 佛子說에 曰信是道源功德母라호니라.” 홍종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15.

8) 홍종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13.

‘寫眞挿入’의 아홉 번째 한의사이다. 기록은 다음과 같다.

“天上에 無不識字之神仙이라호나 世豈有不讀儒之良醫乎
 야 君은 以儒家講匠으로 感范文公所謂 不爲良相인디 當爲
 良醫之言호야 遂專意於醫學者 十星霜數矣라 嘗以典醫로 屢
 奏顯效호야 受賞이 多矣러니 自數年以內로 私設病院호고
 以誠治病호며 以誠用藥호야 無往不誠호니 噫라 君은 可謂
 誠而神者也로다”

趙性燦은 儒學者였다가 醫學으로 전공을 바꾼 인물이었
 음을 알 수 있다. 宋代의 儒者인 范文正公의 “不爲良相, 當
 爲良醫”라는 말은 “좋은 재상이 되지 못할 바에 마땅히 좋
 은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유학자가 의사로 轉業
 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名句이다. 그는 典醫가 된 후에도 여
 러 차례 상을 받았다.

1913년 朝鮮醫生會가 구성된 후 그는 이 단체에서 幹事
 로 활동하였다.

『漢方醫藥界』 2호에 다음과 祝辭를 쓴다.

“크도다 의학이여. 그 유래가 멀도다. 시초에 백성들이
 藥餌를 쓸 겨를 없음에 聖人이 처음으로 강림하여 백성들
 의 요절을 근심하였다. 이윤이 처음 창제하고 신농과 황제
 가 세상에 내려왔고 화타와 편작이 모습을 드러낸 후로 갑
 자기 크게 바로잡혀지게 되어 이 의학의 도가 다시 밝아지
 게 되었다. 동양과 서양 兩方은 한가지로 돌아가노니 안팎
 으로 시술한다면 추호의 오차도 없을 것이다. 우리 동포들
 이여 영원토록 더욱 창성할지어다.”⁹⁾

4) 朝鮮醫生會 幹事 沈希澤



그림 4. 滄會 沈希澤

<그림 4>¹⁰⁾의 沈希澤(1855~1921)은 『漢方醫藥界』 제
 2호 ‘寫眞挿入’에 일곱 번째로 소개된 한의사이다. ‘朝鮮醫
 生會幹事沈希澤君’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君이 達理寶鑑之玄妙호며 潛心靈素之深奧호야 診病如神
 호며 用藥以法호니 四方之來問者 | 不計其數라. 嘗於京師에
 傳染病이 大熾어늘 君이 無料治病者不止幾百人호니 自此로
 名聞一世러라.”

다른 인물들에 비해 소개가 간략하고 이외에 다른 정보
 가 발견되지 않는다. 매우 간략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沈
 希澤에 대한 학술적 경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東醫寶鑑』과의 관련성이다. 이것은 “君이 達理寶
 鑑之玄妙호며”라고 묘사한 문장을 통해 추리해낼 수 있다.
 이 문장은 “심희택선생이 동의보감의 현묘한 이치에 현달하
 였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靈樞』와 『素問』에도 많
 은 연구를 하였다는 것을 추리해볼 수 있으니, 이것은 “潛
 心靈素之深奧”라는 문장 즉 “영추, 소문의 깊은 이치에 마
 음을 담가”라는 말 속에서 배어나온다. 즉 그는 한의학의
 이론과 임상 연계라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음을 알게 된
 다. “診病如神호며 用藥以法호니 四方之來問者 | 不計其數
 라”라는 말을 통해 그의 치료법이 유명하게 알려져서 환자
 를 많이 보았음을 알 수 있다. “嘗於京師에 傳染病이 大熾
 어늘 君이 無料治病者不止幾百人호니 自此로 名聞一世러라”
 라는 그의 무료진료활동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5) 私立醫學講習所 學監 洪在皞



그림 5. 翠岩 洪在皞

9)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大哉醫乎、其來遠矣、厥初生民、未暇藥餌、聖人首降、憂民其天、伊孰草創、神農軒岐、降于季世、華扁既邈、奄及大正、斯道復明、東西兩方、一輒同歸、內外施術、一無差毫、欽我同胞、永世益彰。” 홍종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23.

10) 홍종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11.

<그림 5>¹¹⁾의 洪在皞(1872~?)는 『漢方醫藥界』 2호 ‘寫眞挿入’에 소개된 여섯 번째 한의사이자, ‘私立醫學講習所學監洪在皞君’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君의 号는 翠岩이니 嶠南人이라. 盖嶠南은 以賢士冀北으로 古稱多碩德호니 君亦其人也哉. 君이 以士家舊族으로 嘗曰爲人子者、不可不知醫라 호야 讀醫經數千萬言而知名當世러니 被擢於典醫호야 歷高等官階나 然未嘗以此自大호고 雖寵婢權廝라도 聞其有病호면 若已有疾호야 卽往施療호니 此豈可餘醫之比也哉아. 縱然非勉強爲之者오 乃其素性也러라”¹²⁾

洪在皞는 사립의학강습소의 학감으로 활동하면서 환자의 비천을 가리지 않고 치료해주는 인품을 가진 한의사로 평가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의생총목록1(永年醫生)』¹³⁾에는 1907년 10월 25일 任 侍從院典醫, 1910년 8월 26일 加通政, 1911년 2월 11일~1913년 4월 5일 李王職典醫, 1914년 2월 7일 醫生免許 登錄 71番, 1916년 2월 23일 全鮮醫會 評議員, 1925년 10월 李王職 典醫補, 1928년 10월 17일 동서의학 연구회 평의원겸상담역, 1931년 4월~1935년 이왕직 전의, 1947년 동양의학회 명예회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939년 5월 4일자 동아일보에 『醫方類聚』에 대해 대담한 기사가 보인다. 洪在皞는 조선의학계를 대표하여 『醫方類聚』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의서로 동의보감, 의학입문 등 좋은 것이 많지만 의방유취의 특색은 경험방이 많아서 중국에서나 혹은 기타 어디고 전인미답의 경지를 개척한 것이 많은 것이 옳시다. 그 같은 것을 몇백 년 전에 발간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라도 다시 발간하여 세상에 널리 분포한다면 그것 역시 위대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6) 私立醫師講習所 講師 李世浩



그림 6. 梅谷 李世浩

<그림 6>¹⁴⁾의 ‘寫眞挿入’에는 열 번째로 ‘私立醫師講習所講師梅谷李世浩君’이라는 제하에 李世浩(1868~?)가 기록되어 있다.

“君은 平昌君天驥之后也라. 生于舊韓開國四百七十七年호야 八歲入鄉塾而力學有年矣러니 嘗歎曰人生于世호야 未有 廣濟蒼生호고 豈區區作門戶計而已也哉아. 始乃從事醫學호야 得深奧者多矣러니 既而오. 復致力於鍼灸호니 其意가 將濟吾 兄弟之疲癯殘疾而無告者러라. 肆以로 聞貧者罹病則不避寒暑 不論晝夜忘涉遠近호고 卽馳往而盡心治療호니 人皆稱德醫也 러라”¹⁵⁾

위의 기록을 통해 그가 강원도 평창 출신으로서 1868년 출생하여 어린 시절부터 의학에 뜻을 두고 공부하여 鍼灸學에 뛰어났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의학교육을 위해 학교를 세우거나 다양한 학술활동을 전개한 한의사

1) 朝鮮醫生會 評議長 張容駿

11) 홍중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10.

12) 홍중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10.

13) 박훈평 편저. 『일제강점기 의생총목록1 (永年醫生)』.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7:475.

14) 홍중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14.

15) 홍중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14.



그림 7. 敬軒 張容駿

<그림 7>¹⁶⁾의 張容駿(1866~1929)은 ‘寫眞插入’에 소개된 다섯 번째 한의사이다. ‘寫眞插入’에 ‘朝鮮醫生會評議長張容駿君’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다른 인물보다는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다.

1904년에 張容駿이 중심이 되어 大韓韓醫學校를 설립할 것을 고종에게 요청하였다. 현재의 위치상 唐珠洞의 奉常寺南門골의 내담사 관사에 설립이 허가되었고, 40여 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다. 洪哲普, 張容駿, 李鶴浩 등이 고시관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고시방법은 面講(『內經』 『難經』), 背講(『醫學入門』 『東垣十書』 『丹溪心法』)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고, 이기영, 이교옥, 송태환, 조용환 등이 교사였고, 김영훈, 전광옥 등이 교수로 선발되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 학교가 바로 同濟醫學校로서 張容駿이 초대 교장이 된 것이다. 불행하게도 1907년 헤이그밀사사건이 터져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어 후원자가 없어서 3년 만에 이 학교는 문을 닫고 말았다.

2) 朝鮮醫生會 副會長 徐丙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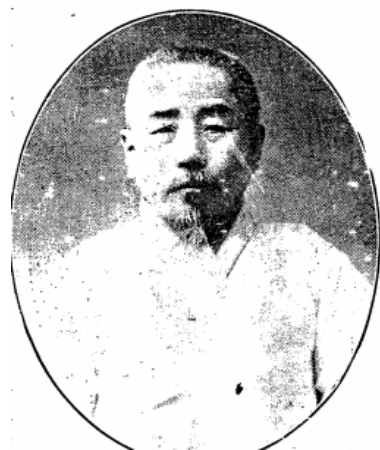


그림 8. 大痴 徐丙琳

<그림 8>¹⁷⁾의 徐丙琳(1862-1922)은 한성의사연찬회의 강사로 활약한 교육자이다. 『漢方醫藥界』 제2호 ‘寫眞插入’의 두 번째 한의사로 ‘本會副會長大痴徐丙琳’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君의 字는 智叟오 號는 大痴니 所居室曰保元堂이라. 舊韓開國四百七十一年二月二十九日에 慶尙北道大邱郡出生으로 全四百七十七年에 修學于私塾호고 全四百八十六年에 始入醫學호고 全四百九十七年에 行醫于嶺南諸處호고 全翌年에 周遊各道라가 去辛丑二月에 入京城開業이러니 明治四十五年에 朝鮮醫師研鑽會附屬講習所長兼類經講師로 被選호고 全年五月에 宜壽堂診察醫師로 被聘호고 大正二年五月에 私立醫學講習所講師로 被選호고 全年十月에 醫學講究會副會長으로 推選되고 現住西部長興洞三十七統四戶保元堂醫院호니 蓋保元堂之名이 聞於遠近者久矣러라”¹⁸⁾

위의 기록을 보면 그의 字가 智叟이고, 호가 大痴이며 대구출신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儒者가 되고자 하였다가 15세에 의학연구를 시작하여 26세에 영남지방에서 유명한 한의사로 활동하게 되고 30대 후반 서울까지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6년 학술잡지 『東醫報鑑』 2호에는 그가 ‘講述師’라고 기록되어 있음도 발견된다.

1910년에 근 洪鍾哲, 趙炳瑾 등과 함께 만들면서 漢城醫師研鑽會를 만들고 여기에서 舊醫學 講師로 활동하게 된다. 研鑽會에서 1911년 講習所를 부설하고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每日申報 1911년 4월 27일자(본문에서 ‘漢醫業從事者들은 醫術의 學術적 진보 및 在來醫術의 研鑽을 위

16) 홍중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9.

17) 홍중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6.

18) 홍중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6.

하여 研學 기관으로 朝鮮醫師研鑽會를 설립하고 회칙을 發布하고 役員을 조직”이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그러한 情狀을 말해주는 것이다.

1912년 醫學講究會가 설립되었을 때 그는 총무로 활동하였다.

『한방의약계』 제2호에는 ‘醫門參古懲今’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있다. 이 글은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학을 받아들이며 학문을 연마하자는 취지의 글이다.

3) 私立醫學講習所 講師 朴海鎭



그림 9. 朴海鎭

<그림 9>¹⁹⁾의 朴海鎭(1875~1922)은 ‘寫眞挿入’에 열두번째로 소개된 한의사이자. ‘私立醫學講習所講師朴海鎭君’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使湮滅之漢方醫學으로 復明於世者는 其惟君之力也. 君이 早以聞士로 致心於醫學호야 於陰陽虛實과 表裡寒熱에 如明鏡照物이라. 以之而診病호며 以之而用藥호야 使危者復安호며 瀕死者復生호야 廣濟一世호니 扁鵲華佗가 豈獨專美於前也哉야. 君의 號는 勿庵이니 嶠南人也러라.”

朴海鎭은 私立醫學講習所 講師로서 私立醫學講習所는 朝鮮醫生會에서 만든 한의학 교육기관이다. “君이 早以聞士로 致心於醫學호야 於陰陽虛實과 表裡寒熱에 如明鏡照物이라”라는 말을 통해 그가 陰陽表裏寒熱虛實의 八綱에 뛰어났음을 밝히고 있음이 엿보인다. 이것은 그가 진단에 있어 한의학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使湮滅之

漢方醫學으로 復明於世者는 其惟君之力也. 君이 早以聞士로 致心於醫學호며 以之而用藥호야 使危者復安호며 瀕死者復生호야 廣濟一世호니 扁鵲華佗가 豈獨專美於前也哉야. 君의 號는 勿庵이니 嶠南人也러라.”

4) 朝鮮醫生會 總務 黃翰周



그림 10. 祥庵 黃翰周

<그림 10>²⁰⁾의 黃翰周(1858~1918)는 ‘寫眞挿入’에 소개된 세 번째 한의사이자. 『漢方醫藥界』 제2호 ‘寫眞挿入’에 ‘朝鮮醫生會總務黃翰周君’이라는 제하의 글이 나온다.

“君의 號는 祥庵이니 其先은 濟安人이라. 生自五六歲時로 鄉隣이 皆稱孝童이러니 年十六에 因親憂호야 悄然覺悟曰古之爲人子而不可不知醫云者 | 良有以也라 호고 遂潛心於醫經者八年而尤工於鍼灸나 然自以所學未精으로 趣未臨病이러니 舊韓開國四百九十一年에 開業於平壤府라가 而已오. 挈家移忠州郡호야 療人疾病者不可以百千計라. 以儒醫上聞호야 特除繕工監假監役而不就仕호고 光武九年에 轉接京城호야 明治四十四年一月에 私立中學醫學講習所에 入學호야 全四十四年六月에 西醫學全科의 修業證書를 受호니 自是以後로 臨症投藥에 日無全牛라. 雖然이는 常洞洞焉, 屬屬焉호야 如臨深淵호며 如履薄氷호니 此其素性然也러라.”²¹⁾

위의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黃翰周의 호는 祥庵으로서 16세에 부모의 질병으로 의학에 뜻을 두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특히 鍼灸學에 뛰어났다. 1883년에 平壤에서 개원하였다가 忠州로 옮겼다가 1905년 다시 서울에서 의업을 계속하였고, 1910년 私立中學醫學講習所에 입학하여 西醫學全科

19) 홍중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16.

20) 홍중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7.

21) 홍중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7.

의 修業證書를 받는다. 1913년 朝鮮醫生會의 총무가 된다.

『漢方醫藥界』 제2호에는 黃翰周의 “鍼灸總論²²⁾”이라는 글이 나오는데, 그는 질병의 원인을 “무릇 질병은 모두 飮食失節, 酒色過度 등으로 말미암아 風寒暑濕이 虛를 틈타서 經絡에 녹아 들어와서 營衛가 不行하기 때문이다”라고 정의한 후에, 치료는 질병의 발생 부분과 사기의 침범부위와 원인을 제대로 알아서 虛實을 판별해서 補瀉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침을 놓기 전, 진단할 때 “그 부분의 색을 보면 靑色이 많으면 痛, 黑色이 많으면 風痺, 白色이 많으면 寒, 黃赤色이 많으면 熱이다”고 하여 五色으로 진단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寒熱에 대해서는 “寒이 많으면 筋攣骨痛이 있고, 熱이 많으면 筋緩骨消이다. 惡寒하면서 몸이 찬 것은 冷이고, 惡熱하면서 몸에 열이 있는 것은 熱이다”라고 하였다. 痛證에 대해서는 “머리에는 冷痛이 없고, 배에는 熱痛이 없다. 무릇 아프면서 善行數變하는 것은 風이고, 아픈 곳이 한 군데이면서 皮膚가 赤熱한 것은 膿의 징조이다” 하였고, 痰飲에 대해서 “皮膚가 밖으로 들뜨면서 가렵지도 아프지도 않은 것은 痰 때문이다. 頭目眩暈은 痰이 風을 낀 것이다. 痰이 心竅로 들어가면 精神이 昏迷하고 言語가 錯亂한다. 脾胃가 不和하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中風에도 語言蹇澁이 나타난다. 痰厥에는 頭痛嘔吐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19병기 중 臟腑에 해당하는 내용은 “대개 모든 아프고 가렵고 부스럼지는 것은 모두 心에 속한다. 모든 風으로 흔들고 어지러운 것은 모두 肝에 속한다. 모든 축축하고 부어오르고 그득한 것은 모두 脾에 속한다. 모든 기침하면서 숨을 헐떡이는 것은 모두 肺에 속한다. 모든 筋骨이 아픈 것은 모두 腎에 속한다. 모든 갑자기 뻣뻣해지는 것은 모두 膽에 속한다.(大概諸痛痒瘡, 皆屬心, 諸風掉眩, 皆屬肝, 諸濕腫滿, 皆屬脾, 諸咳氣喘, 皆屬肺, 諸筋骨痛, 皆屬腎, 諸暴強直, 皆屬膽)”이다.

1883년 평양에서 한의원을 개원하다가 1905년에 서울로 올라와 醫業을 계속하다가 1910년에 私立中學醫學講習所에 입학하여 이듬해에 西醫學全科의 修業證書를 받은 그의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西洋醫學에 대한 아무런 견해도 피력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신기하다.

3. 한의사단체를 조직하는 등 한의사들의 모임을 이끌어 가는데 노력한 한의사

1) 朝鮮醫生會 幹事長 李鶴浩



그림 11. 又翠 李鶴浩

<그림 11>²³⁾의 李鶴浩(1850~1934)는 ‘寫眞挿入’에 소개된 세 번째 한의사이다. 『漢方醫藥界』 제2호에 ‘朝鮮醫生會幹事長李鶴浩君’이라는 제하의 소개 글이 나온다.

“君의 號는 又翠오 籍은 平昌이니 即李芝田之從孫也라. 舊韓開國四百五十九年四月十一日に 生호야 天性이 仁溫호고 自幼好讀이러니 不幸罹于戊辰禍網이라. 流落鄉里호야 遂肆力於軒岐之學者 | 專矣라. 既而오. 以良醫上聞호야 至甲午에 蒙伸雪之恩호고 明治三十四年에 初任軍部主事호고 全三十五年에 轉任太醫院兼典醫호고 全三十六年의 陞六品호고 全六月의 陞典醫補호고 全三十七年의 陞叙奏任典醫호고 全三十八年의 陞正三品호고 全三十九年의 陞奏任四等호고 全四十年의 依免호고 全四十三年의 朝鮮醫師研鑽會參事長被選호고 全四十五年에 宜壽堂診察醫師로 勤務호고 大正二年에 朝鮮醫生會幹事長과 維持會長을 被選호니 君之行術于世者 | 三十有餘年에 以至誠臨病호야 人多見效故로 世稱誠醫러라.”²⁴⁾

위의 소개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李鶴浩의 호는 又翠로 平昌人이다. 李芝田의 종손으로 戊辰年(1868년)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여 낙향한 후에 한의학을 연구하여 名醫로 이름을 떨쳤다. 그의 명성이 궁중에까지 알려지게 되어 1894년 고종의 용서를 받게 되고, 1901년 軍部主事로 임명되었다. 1902년 太醫院兼典醫를 맡고 다음해에 6品으로까지 승진되었고 典醫補가 되었다. 1904년 典醫 주임으로 승진한 후 太子妃의 치료를 위해 宿直典醫가 되었다. 이

22) 황한주. 「침구총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11.

23) 홍종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8.

24) 홍종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8.

듬해에 正三品으로 품계가 상승한다. 이 글을 통해 그가 몰락한 집안의 후예로 의학연구에 매진하여 고종의 용서를 받아 御醫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2년 宜壽堂에서 환자를 진료하였고, 1913년 朝鮮醫生會의 간사장을 맡았다.

『漢方醫藥界』 제2호에 그는 “內傷論”²⁵⁾이라는 논문을 게재한다. 글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장이 발견된다. “사람이 몸을 편하게 하는 것의 근본은 먹는 것이다. 飮으로 陽氣를 기르고, 食으로 陰氣를 길러 脾胃를 조화롭게 하여 기의 運行을 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嗜慾無節, 飮食失宜 등으로 內傷이 생기는데, 이러한 내상증도 방금 생긴 것과 오래되어 쌓인 증이 있어서, 不足症과 有餘症의 구분이 있으니 이를 잘 살펴야 한다.” 이 글귀는 內傷을 중요한 논거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東醫寶鑑』을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중심 문장이다.

2) 朝鮮醫生會 會長 洪鍾哲



그림 12. 慕景 洪鍾哲

<그림 12>²⁶⁾의 洪鍾哲(1852~1919)은 ‘寫眞挿入’에 소개된 첫 번째 한의사이자, 『漢方醫藥界』 제2호에 ‘本會長慕景洪鍾哲’이라는 제하의 소개 글이 나온다.

“蒼顏白髮이 九分乎如來之像者는 惟我會長慕景先生之眞也라. 先生이 年纔十二에 嘗趨庭而問曰欲廣濟民生인디 當學何書잇가. 乃翁이 奇之曰其有醫學乎 予遂潛心於素問類經等書而慕張景岳爲人호야 益致力於其書러니 及成年에 以良

醫聞호야 四方이 皆歸之라. 每診病에 知之如神故로 世稱神手호더라. 嘗著八陣新編上下卷호니 此可見平生所蘊이러라 先生이 今雖老矣나 然每晨起호야 於脉經、陰陽、表裡、虛實、寒熱等篇을 讀一二回然後에 始乃診病호니 如是者三十年于茲矣라. 自數年以內로 設醫學講習所호고 教授後進호야 欲廣濟衆生호니 其或如來前身이 復生于世者邪아 遂爲之識호노라”²⁷⁾

洪鍾哲은 『景岳全書』를 연구하여 한의학의 발전을 계획한 한의사이자, 『景岳全書』는 張景岳이 중국 명대 기간에 속하는 1624년 저술한 醫書이다. 河基泰 등의 연구²⁸⁾에 의하면 『景岳全書』는 朝鮮의 醫書 가운데 『醫門寶鑑』, 『濟衆新編』, 『麻科會通』, 『醫宗損益』, 『方藥合編』, 『醫鑑重磨』, 『東醫壽世保元』 등 조선 후기 수많은 醫書들에서 인용하고 있다. 醫家들에게 미친 『景岳全書』의 깊은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

위의 기록을 바탕으로 洪鍾哲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세에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여 『景岳全書』를 많이 학습하였다. 그의 호가 ‘慕景’인 것은 『景岳全書』의 저자 張景岳(1563~1640)을 사모한다는 의미에서이다. 그는 『景岳全書』를 연구하여 『八陣新編』上下卷을 저술하였다. 진료에 임하기 전에 『景岳全書』의 내용을 읽은 후에 진료를 시작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였다. 1908년에 公認醫學講習所를 설립하여 근대적 한의학교육을 시작한 후 그가 죽는 1919년까지 헌신한다.

그의 저술 가운데 『經絡學總論』이 있다. 안상우의 연구에 따르면 이 의서가 홍중철의 저술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보인다.²⁹⁾ 안상우에 의하면, 『의약인명사전』에는 洪鍾哲(1852~1919)이 1922년 『經絡學總論』을 저술하고 채색본 銅人圖를 인출했다고 적혀 있지만 발행 시기가 저자의 사후인 점이 확인치 않지만, 동시기 金海秀가 1920년에 간행한 『萬病萬藥』의 歷代醫學姓氏를 보면 ‘洪鍾哲 著經脈學銅人學’이라고 되어 있어 개연성을 더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1913년 朝鮮醫生會 회장이 된 후 『漢方醫藥界』라는 이름의 학술잡지를 간행한다. 『漢方醫藥界』 2호에 “婦人論”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고, 1916년에 간행된 학술잡지 『東醫報鑑』에는 ‘生理說’이라는 글 게재한다.

25) 이학호. 「내상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32-33.

26) 홍중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5.

27) 홍중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5.

28) 河基泰, 金俊錫, 崔達永. 「『景岳全書』가 朝鮮後期 韓國醫學에 미친 影響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會誌. 1999;20(2):12-26.

29) 안상우. 고의서 산책(137) - 『經絡學總論』. 民族醫學 137호 참조.

3) 漢方醫藥界 編述員 李洵宰



그림 13. 李洵宰

<그림 13>³⁰⁾의 李洵宰(1864~1931)는 ‘寫眞挿入’의 열세 번째 마지막에 소개된 한의사이다. ‘漢方醫藥界編述員 李洵宰君’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君은 醫家宗匠이오 世間活佛이라. 嘗以典醫로 出入宮中者 | 十數年이러니 既而오 退臥江湖호야 以普救衆生으로 爲畢生事業호니 其意가 非洵乎慈善者면 能如是乎아. 噫라. 世之營營於積財主意者는 非君所取也이니라.”

위의 글에 따르면, 이순재는 典醫로 10여 년간 활동하다가 典醫를 사직하고 한의원을 개원하여 활동하였고, 금전적 이익보다는 환자의 치료에만 매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大韓帝國官員履歷書』에 나오는 그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이하 연도는 서력기원으로 재정리) 1872년 受學業于私塾, 1892년 受醫學于家庭土, 1895년 4월 7일 任典醫補 敍判任六等, 1896년 1월 1일 陞五等 官制更張時, 1897년 10월 8일 陞六品 患候平復別單, 1901년 9월 7일 陞敍 患候平復別單, 1902년 5월 6일 陞正三品 患候平復別單, 1903년 7월 6일 任典醫 敍奏任六等, 동년 11월 4일 陞五等 患候平復別單, 1905년 3월 23일 陞四等八級 官制更張時, 1907년 현재 正三品太醫院典醫.³¹⁾

1914년에 의생면허를 받았다. 典醫로 활동한 후 일제강점기 이후로는 관직을 사퇴하고 서울에서 한의원을 열고 진료활동을 시작하였다. 내용 가운데 ‘漢方醫藥界編述員 李洵宰君’이라는 문장을 통해 그가 잡지의 편집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漢方醫藥界』 제2호에 소개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20세기 초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는 이들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반드시 그러한 방법으로 분류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일제에 의해 자행되는 민족의학에 대한 탄압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민족의학의 살길을 계속해서 모색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한의학이 사멸되지 않고 명맥을 이어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漢方醫藥界』 제2호의 ‘寫眞挿入’이라는 제하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들은 모두 한의계에 종사한 인물들이지만 그들이 좀 더 중점적으로 활동한 분야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 구한말에 왕실의 어의를 역임했거나, 집안 대대로 의업을 하면서 뛰어난 의술을 지닌 한의사로 洪在皞, 李世浩, 沈希澤, 裴碩鍾, 趙性燦, 孫師濬 등을 들 수 있다. 흥재호는 어의로서 왕실에서 근무하면서 일제강점기까지 전의로 구왕실의 왕족들을 진료하는 활동을 이어갔고, 이세호와 심희택은 뛰어난 임상가로 소문이 나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였다는 기록이 나오고, 조성찬은 전의로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상을 받은 인물이다. 손사준은 삼대에 걸쳐 한의사를 하고 있는 인물로서 조선의생회 평의원으로 활동하였다. 다음으로 한의학교육을 위해 학교를 세우거나 다양한 학술 활동을 전개한 한의사로 張容駿, 徐丙琳, 朴海鎭 등을 들 수 있다. 한의학 관련 학교의 증설이 불가능했던 일제강점기 전 시기는 한의학을 이어갈 수 있는 후계 집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과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설립이 절실한 시기였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의사들은 계속 강습소의 형태로 한의학교육을 이어갔다. 동제의학교를 설립하여 근대적 한의학교육의 시작을 열어 초대 교장으로 활동한 장용준, 한성의사연찬회에서 강습소를 운영할 때 강사로 활동한 서병림, 사립의학강습소를 설립하여 그곳의 강사로 활동했던 박해진 등이다. 黃翰周는 사립중학의학강습

30) 홍종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17.

31) 대한민국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대한제국관련이력서』. 서울:탐구당. 1972:20.

소에 입학하여 공부한 후에 조선의생회 총무로 활동하였다. 다음으로 한의사단체를 조직하여 한의사들의 모임을 이끌어 가는데 노력한 한의사로 李鶴浩, 洪鍾哲, 李洵宰 등이 있다. 이학호는 구한말 궁중에서 어의로 활동하면서 승진을 거듭하다가 조선의생회가 만들어졌을 때 간사장을 맡으면서 단체 조직을 위해 헌신하였다. 홍종철은 조선의생회가 만들어졌을 때 회장으로 활동하여 한의사단체의 구성에 선수범하였으며 공인의학강습소를 설립하여 근대적 한의학 교육의 시작을 열기도 하였다. 이순재는 전의로서의 활동을 끝내고 관직을 사퇴한 후 조선의생회에서 간행한 한국 최초의 학술잡지 『한방의학계』의 편술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의사 단체의 학술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방의학계』 제2호 ‘사진삽입’은 비록 이 자료만으로 활동 시기와 영역의 국한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일제강점기 초기에 의욕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한의사들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값진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전체 한의사가 다 참여하는 단체가 아닌 조선의생회라는 단체의 임원들 중심으로 수록되어 있는 자료이지만, 이들의 활동이 일제강점기 전체 시대에 계속 이어지고 해방 이후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자료가 한의학의 근현대 초창기의 시작을 연 인물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일제에 의해 자행되는 민족의학에 대한 탄압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민족의학의 살길을 계속해서 모색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한의학이 사멸되지 않고 명맥을 이어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7. 김적. 「韓國最近世 東洋醫學의 學術的 특징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8. 唐宗海. 『中西匯通醫書五種』. 서울:동남출판사(영인). 1984.
9. 맹용재 외. 『韓國醫藥人名事典』. 서울:의성당. 1991.
10. 신동원.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및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6.
11. 신중완. 「日帝侵略에 依한 韓方醫療制度廢絶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12. 양성완. 「『中西匯通醫經精義』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3. 이종형. 『淸崗醫鑑』. 서울:성보사. 1984.
14. 이종형. 『韓國東醫學史』. 서울:한국현대문화사대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7.
15. 정지훈. 「日帝時代初期 韓醫學術雜誌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6. 조헌영. 『東洋醫藥』 제1호~제3호. 서울:東洋醫藥社. 1935.
17. 靑柳綱太郎. 『朝鮮醫學界』 제1호~제11호. 서울:朝鮮醫學界社. 1918.
18. 최동섭. 『東醫報鑑』 제1호~제2호. 서울:全鮮醫會. 1916.
19. 한봉희.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1호~제6호·革新. 제1호. 서울:東西醫學研究會月報社. 1923.
20. 홍원식. 『黃帝內經素問』. 서울:전통문화연구회. 1993.
21. 홍종철. 『東西醫學報』 제1호~제3호·제5호~제8호. 서울:公認醫學講習所. 1916.

참고문헌

1. 정지훈. 「韓醫學術雜誌를 중심으로 살펴본 日帝時代 韓醫學의 學術的 傾向」. 韓國醫史學會誌. 2004;17(1):195-253.
2. 홍종철. 『漢方醫藥界』 제2호. 서울:朝鮮醫生會. 1914.
3. 河基泰, 金俊錡, 崔達永. 「『景岳全書』가 朝鮮後期 韓國醫學에 미친 影響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會誌. 1999; 20(2):12-26.
4. 안상우. 고의서 산책(137). 『經絡學總論』. 民族醫學 137호.
5. 기창덕. 『韓國近代醫學教育史』. 서울:도서출판 아카데미아. 1995.
6. 김두중. 『韓國醫學史』. 서울:탐구당. 1998.